



벌꿀 다수확 비법

대구대한양봉원
대표 이락천

우리나라 속담에 꿩잡는 놈이 진짜 ‘매’ 라는 속담이 있다. 양봉도 꿀을 많이 채밀하는 것이 상책이라 믿는다. 옛날에는 고정양봉은 5되, 이동양봉은 10되로 꿀을 채밀하였으나, 요즘은 고정은 10되, 이동은 20되를 능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양봉은 3~4년만 하면 자기가 제일 기술자인 양 자부하는가 하면, 본인의 방법이 제일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평생 양봉을 하면서 계상법, 격왕법, 무왕군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다. 그런데 90년대 중국산 대나무 왕룡이 수입되었다. 중국이 한국보다 10~20년 후진국이라 하지만 양봉만큼은 10~20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나무 왕룡을 사용해본 바, 아주 손쉽게 다수확 채밀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2~3단 계상이 유행하고 있는데 채밀량을 문의해보면 그리 신동하지 않다. 예컨대 10만마리의 벌을 계상해서 채밀한다 해도 고작 5~6되 채밀한다고 한다. 5만마리 벌로 단상을 해서 대나무 왕룡에 왕을 가두고 채밀한다면 역시 5~6되는 가능하다. 그럼 지금부터 대나무 왕룡의 비법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아카시 개화 10일 전까지 12매 단상벌을 만군으로 키워야한다.

둘째, 아카시 개화 7~8일전에 여왕을 중국산 대나무 왕룡에 가두어서 소비단상에 둔다. 일벌은 왕룡에 출입이 가능하기에 먹이도 주고, 보호한다.

셋째, 여당이 순행을 하지 않으니 기존 유충으로 변성 왕대를 많이 짓는다. 하지만 신왕이 출방하기 전에 채밀하기 때문에 1차 채밀때 변성 왕대를 모두 제거해 버리면 된다.

넷째, 이렇게하면 1차 채밀이 3~4되가 되면, 2차는 4~5되, 3차는 5~6되로 계속 해서 채밀량이 늘어난다.

후자는 여왕이 산란을 못해서 군세걱정을 하지만 상관없다. 마지막 채밀때까지 유봉이 터져나온다. 그리고 3~4차 채밀 후에 여왕을 방류해도 상관없다. 특히 유념할 것은 여왕이 산란을 하지 않으니 내역봉이 필요 없기에 더욱더 많이 채밀할 수 있다.

본인은 아카시아 꽃의 채밀만 군당 20되 이상 채밀하고 있으니, 양봉농가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금년에도 봄벌 육성에 만전을 기하시고, 아울러 풍미를 기원합니다. 

